

“불교의 믿음은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도올 김용옥 교수와 불교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이 7월 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렸다. 5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한 이날 워크숍은 ‘믿음과 깨달음’을 주제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 사회 및 ‘기철학 체계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옥 교수(세명대 석좌교수)는 “불교에 있어 모든 믿음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믿음일 뿐”이라며 “따라서 불교의 믿음은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다른 말로 나의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믿음과 깨달음은 몸을 가진 상식적 인간의 문제일 뿐이며, 그것은 몸의 욕망을 끊임없이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행위이자 곧 대승의 정언 명령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특히 “인간의 행위에 ‘완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점수(漸修) 속에 돈오(頓悟)가 있고, 돈오 속에 곧 점수가 있을 뿐”이라며 ‘돈오돈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돈

김용옥 교수,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서 강조 ‘기철학 체계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주제 발표

오가 와도 점수가 계속되어야 깨달음이 유지되며, 육바라미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깨달음이 이 시대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초기불교에서 선불교까지 시대별 불교의 믿음과 깨달음에 대해 불교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성택 교수(경북대)는 ‘초기·부파 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에서 “초기불교에서는 불·법·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상제에 대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믿음만을 강조하면 지혜를 등한시하게 되고, 지혜만을 중요시하면 믿음을 잃기 쉽다”는 임 교수는 “초기불교에서는 균형 잡힌 마음상태를 강조하며, 그러한 가운데 점차적으로 깨달음을 실현해 나가는 한다고 가르친다”고 정리했다.

‘인도 대승불교에 있어 믿음과 깨달음’

을 발표한 안성두 교수(금강대)는 “유식에서는 믿음이 과연 해탈에 결정적인 요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며 “믿음 자체는 분명 마음을 정화시키고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래장 사상에 있어서는 깨달음이 믿음에 의해 증득될 수 있다고 설해진다”고 덧붙였다.

하일범 교수(진각대)는 ‘밀교의 믿음과 깨달음’에서 밀교의 성격을 정의한 후 “밀교에서는 불보살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의 믿음이 중시된다”며 “밀교에서의 깨달음은 불법을 전하는 자나 전해 받는 자의 자격과 믿음이 전제되며, 아사리(스승)는 제자에게 독특한 신심과 삼보에 대한 공경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화엄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을 발표



7월 7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워크숍에 참석한 도올 김용옥 교수는 “불교에서 믿음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신규택 교수(연세대)는 “화엄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부처와 똑 같은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추호의 의심 없이 믿고, 보현보살의 실천을 따라 생을 거듭하면서 번뇌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의 관계를 살펴본 이덕진 교수(충원전)는 “선불교에서의 믿음은 자신은 물론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다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나와 부처님은 어떠한 차

이도 없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한 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용옥 교수가 발제문에서 ‘돈오돈수’를 ‘불타의 원래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말쑥한 개념대립을 극화시켜서 운운하는 말장난’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선불교에서의 믿음은 자신은 물론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다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나와 부처님은 어떠한 차

정수사 여름 ‘孝心캠프’ 개최

정수사주지 세대는 청소년의 ‘효’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제2회 산사 여름 ‘효 캠프’를 개최한다. 7월 20~22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효 캠프는 전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효도 체험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마음열기, 텃밭채취,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등 스님은 “이번 산사 ‘효 캠프’는 부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참된 효를 체험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비 5만원. (055)342-4441 **하성미 기자**

영광도서, 디지털사진 특강

부산 영광도서(대표 김윤환)는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에서 디지털사진 무료특강을 개최한다.

엄영달 강사(영광문화원 사진아카데미)의 진행으로 사진 일반이론, 노출 및 렌즈, 구도, 야경사진 촬영법과 풍경사진, 인물사진 촬영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정수는 영광도서 1층 에메리카 홈페이지(www.ykbook.com)에서 할 수 있다. (051)816-9500 **하성미 기자**

부산생명나눔, 환우 돕기 행사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원자를 찾기 위해 7월 20일 오전 10시 부산 여여선원 보승잡지에서 일일잡집을 연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힘든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2006년 7월에 창립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7월 20일 오후 2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부산 여여선원 7층 법당에서 봉행한다.

하성미 기자

해외입양인 전통문화체험 행사

백련과 구절초로 유명한 공주 영평사가 8월 6~7일 해외입양인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부에서 개최하는 해외입양인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연구원이 초청해 이뤄졌다.

해외입양인들은 사물놀이와 불교미술 체험, 발우공양과 예불, 참선, 다도 등을 통해 어머니 나라의 정취를 맛볼 예정이다. (041)857-1854 **남동우 기자**

허응 보우·환성 지안 스님 석상 제막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에 건립

“조선시대 쓰러져 가던 불교를 일으켜 세우려고 목숨까지 바친 허응 보우 스님과 환성 지안 스님을 아십니까?”

허응 보우(1509-1565·사진 왼쪽) 스님은 조선의 불교를 증흥시키고자 폐지되었던 선교 양종과 승과 제도를 부활시켰으며, 환성 지안(1664-1729·사진 오른쪽) 스님은 화엄의 대강백으로서 화엄대법회를 개설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화했다. 하지만 두 스님은 유생들의 박해로 제주도 조천까지 유배되어 꽃과 몽둥이에 맞아 통탄의 죽음을 맞이했고, 나라를 어지럽힌 오승(畝僧)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남아있다. 조계종 직할교구 평화통일불사리탑에 호국불교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허응 보우·환성지안 스님 석상이 제막된다.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과 서울 법화정사 회주인 도립 스님의 원력으로 8월 16일 오전 10시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되



는 두 스님의 석상은 3m 높이로 조성됐다.

도립 스님은 1991년 보우 스님과 지안 스님이 순교한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부처 400평을 마련해 조천동산을 조성한 뒤 두 스님의 순교비를 건립했다.

또 1992년 평화통일불사리탑 부설 보우사상연구소를 설립해 2005년 일본 전리대학에 보관된 보우대사 시문집인 <허응당집>을 번역하기도 했다.

도립 스님은 “애국정신의 고취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의 앞날을 밝히려며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통일불사리탑은 호국을 기원하는 법화경 독송기도, 법화경 사경 봉안식도 거행한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부부를 위한 산사체험 행사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택)이 8월 10-12일 충남 금산 미륵사에서 제8회 워크숍 ‘당신의 나의 부처님’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부부가 함께 산사체험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봄으로써 가정의 조화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부부가 MBTI, 미술치료, 영화치료, 커피게임 등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꾸려진다. 강사로는 봉은사 교육국장 선임 스님과 김준형(영화치료전문가) 양진명(미술치료사) 황승경(법원 이혼상담위원)씨 등 상담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선착순 30쌍 접수, 참가비 9만원. (02)737-8803 **여수령 기자**

“도난 탕화 소유권 반환 訴’ 패소 유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논평 발표… “시대착오적 판결” 지적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순천 선암사가 도난당한 탕화를 돌려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동산인도 청구소송에 패소한 것과 관련, 7월 6일 논평을 발표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화부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는 경유야 어찌됐건 손에 넣는 사람이 주인이며 공소시효만 지나면 장물을 사고파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도둑꾼들의 논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며 “이번 판결로 문화재 도난품(장물)의 매매가 보다 용이해지고 활발해 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부는 “도난문화재를 오래 점유하고 있었다 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선암사 도난문화재에 대한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한 뒤, “최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7월말 시행예정)은 ‘문화재의 매

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만큼, 법의 실효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암사는 도난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도록 하는 반환운동과 도난문화재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백양사 박물관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귀중한 문화재의 도난과 매매를 법으로 정당화시켜준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여수령 기자**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호주 정법사 중·고교생 방한

호주 시드니 정법사 중·고교생 방한 부 학생들과 학부모 등 40여명이 7월 3일~13일 한국을 방한했다.

방문단은 양산 통도사, 순천 송광사, 경주 불국사, 수원표교당 등에

서 한국불교를 체험했으며, 낙안읍성, 용인민속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해외 교민 자녀들에게 한국의 정신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법사 주지 법등 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졌다.

정법사는 기후 스님이 오랫동안 가꿔온 호주 내 대표적인 한국사찰로 호주에 있는 한국사찰과 연계·협력할 도모하고 있다.

정법사 주지 법등 스님은 “방학 기간 한국사찰과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진행해 해외사찰과 한국사찰과의 연계 및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시원한 제주 앞바다로 떠나요
참선단식 7일집중 삼매체험수련회

참선과 단식으로 짐작 관념의 벽을 헐고 무한자재의 절대근원의 자아 회복 - 무념으로 화두의심에 바로 들어가는 간화선 화두의심 체험

◆ 바로 끊고 바로 먹는 가벼운 금강체력 금강단식 ◆

▶ 금강 단식의 효과

1. 바로 끊고 바로 먹는 금강단식. 단식 부담은 최소 위험부담은 없음
2. 단식 전 예비단식, 단식 후 보식이 전혀 필요 없음.
3. 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 (1일 최고 3kg) 고혈압 당뇨 위장 대소장 심장 간장 폐 신장 치료 예방 체질개선 절원(絶緣) 등 다양한 효과
4. 수료 후 직장인이 근무 중에 단식 연장 가능하게 함.

◆ 운명 천성을 바꾸는 자아성찰의 참선 ◆

▶ 참선 단식의 특징

1. 화두의심만 할 줄 알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 - 참선으로 운명 천성이 뒤바뀐다.
2. 단식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화두의심에 들어간다.
3. 신체 병신부담을 줄인 참선단식병행 - 신체와 정신은 나누어지 지않기에 가능하다.
4. 일과 - 참선법문 좌선 행선 요가 운동 묵언 취침

1. 홈페이지 : www.wseon.com 원명선원.kr
2. 대 상 : 고교 이상 일반인 60세한
3. 수련일정 (6박 7일)
 - ◆ 1차 : 07. 7. 26 ~ 8. 1
 - ◆ 2차 : 07. 8. 6 ~ 8. 12
4. 회 비 : 후원금으로 접수
5. 접 수 : '07년 7월 25일까지 선착순 50명. 제주시 화북1동 원명선원(교대 옆) ☎ 064)755-3322
6. 입금계좌 : 농협 953-17-000706 (예금주: 원명선원)
7. 차수를 정하고 항공편을 속히 예약해야 함(육지부해당)
8. 홈페이지에서 접수

물만 마시고 청인병을 치료 할 수 있다!

월명사 입시기도 안내

수능 고득점 100일 합격기도

□ 입재 : 2007년 8월 8일 □ 회향 : 2007년 11월 15일

▲ 특 보 1. 수능 고득점 예상문제 제공(단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2. 수험생 사주 풀이에서 원하는 대학합격
 3. 수능 50점 점수 따기 짝편

▲ 기도시간 · 문 과: 월·수·금요일 오전 5:00 ~ 6:30 / 오후 2:00 ~ 3:30
 · 예계능실업계: 화·목요일 오전 5:00 ~ 6:30
 · 이 과: 토·일요일 오전 5:00 ~ 7:00
 월·수·금요일 오후 3:30 ~ 5:00

수능 고득점 합격 위한 매일 음력 8일 팔공산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 합격정진기도

· 1차 성지순례: 7월 21일(음 6. 8) · 2차 성지순례: 8월 20일(음 7. 8)
 · 3차 성지순례: 9월 18일(음 8. 8) · 4차 성지순례: 10월 18일(음 9. 8)

● 출발시간: 매일 오전 7시 ● 장소: 월명사 앞
 ※ 대상: 고1, 고2, 고3, 재수생 ※ 합격위한 월명 수능 법요집 제공

관음기도 도량 월명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예스레 11층
 (1호선 중각역 2번출구 조계사방향 70M 시내버스 정류장)
 ☎ 02)732-0835